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급물살

현대백화점그룹, 전방 부지에 '더 현대 광주' 짓겠다 첫 포문
광주신세계·롯데쇼핑도
광천동 일대·금타 공장 등
부지 설정 치열한 경쟁 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광주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의 유치전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유통업계 '빅3' 중 한곳인 현대백화점그룹이 국내 대표 핫플레이스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복합몰인 '더현대 광주'를 짓겠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지역 내에선 일단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중소상인과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백화점그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개발기업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PFV와 함께 광주시 북구 임동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29만3000여㎡ 중 일부에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 (가칭)를 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미래형 문화복합몰을 묻는 질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소매점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금의 복합쇼핑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쇼핑과 더불어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접목되는 새로운 업태로 '더현대 광주'가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현지법인을 추진하고 2만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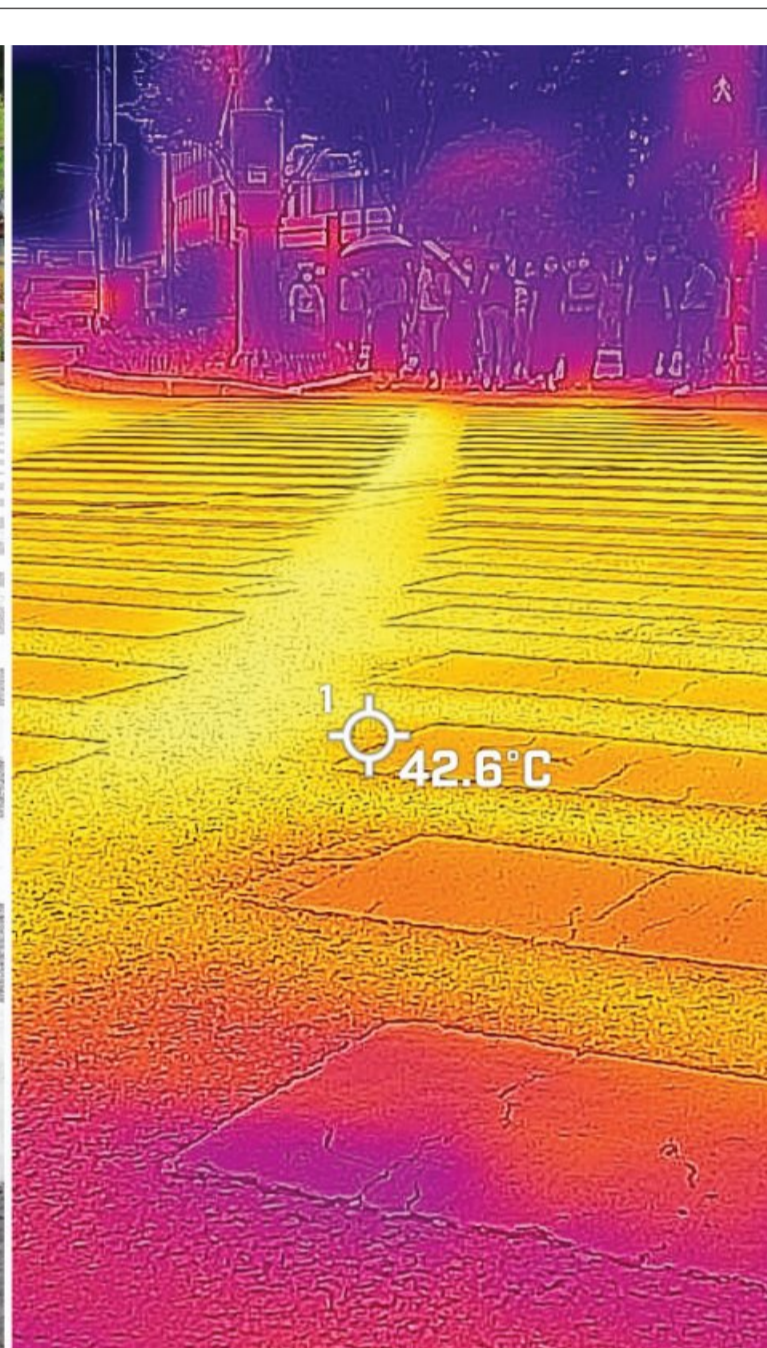
또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와 그동안 광주에 소개되지 않았던 MZ세대 타겟의 새로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장을 꾸미고, 인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한 마케팅·서비스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더현대 광주'를 포함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맡게될 휴먼스홀딩스 제1차PFV는 부동산 개발사인 신영과 우미건설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방·일신방직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광주시와 토지이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휴먼스홀딩스측은 조만간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께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대산업 유산인 전방·일신방직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을 모태로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광주시는 이곳을 상업·주거 용지로 개발하고 이익 일부를 개발 업체가 공공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휴먼스홀딩스측에 근대 건축물 보존과 함께 도시 경쟁력 제고, 아파트 위주가 아닌 상업·문화 융복합 개발, 국제적 수준 호텔 건립, '라키



뜨거운 광주... 도로는 42.6도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등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웃돈 6일. 정오 무렵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광주 북구청 앞 횡단보도가 42도를 넘어서는 등 지표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비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건립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날 제안한 문화복합몰 역시 이 같은 개발계획 중 도시경쟁력 제고와 상업·문화 융복합 개발 방안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날 현대백화점그룹의 선언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개발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치전의 승자가 대형 유통업체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500만 인구 규모의 광주·전남·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체간 치열한 물밑경쟁도 예고되고 있다.

광주현지법인으로 그동안 광주발전에 기여해온 (주)광주신세계측은 이날 탄탄한 자본금(순자산 7458억원)과 1만2000명(4만㎡)에 달하는 보유 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롯데쇼핑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로 광주시와 접촉에 나서는 등 복합쇼핑몰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세계와 롯데측은 방직공장터를 사업부지로

점찍은 현대백화점그룹과 달리 광천동 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합평 이전 예정인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등 지역 주요 거점별보다 후보지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방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유통 3사의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공기여 등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복합쇼핑몰 입지를 방직공장터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대상지 등으로 선정할 경우 해묵은 현안에 대한 해법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 등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활용 방안이나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 모두 협의나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형 3축체계'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한다

전군지휘관회의

군 당국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충하고자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 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3축 체계를 구현할 전략무기를 지휘통제할 뿐 아니라 관련 전력 발전계획 수립도 맡게 된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등 4대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격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적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군은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을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300 붕괴... 환율 1300원 돌파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6일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2300 아래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은 1306.3원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갱신, 다음 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 요인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7포인트(2.13%) 내린 2292.0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300을 밑돈 건 2020년 10월30일(2267.15)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235억원, 3151억원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8972억원을 사들였으나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32포인트(0.84%) 내린 744.63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3억원, 32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0원 오른 1306.3원에 마감했다. 전날(1300.3원)에 이어 이를 연속 1300원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311.0원까지 오르며 2009년 7월13일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연고점도 넘어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존재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